

책 소개-엘리트 독식사회

ONDMCA



WINNERS TAKE ALL
THE ELITE CHARADE OF CHANGING THE WORLD

엘리트독식사회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들의 열망과 위선

아난드 기리다라다스 지음 | 정인경 옮김

“더 나은 세상을 내세우며 민주주의를 대체하려는
시장의 승자들에 대한 예리한 비판!” _ 마이클 샌델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파이낸셜타임스
2018
‘올해의 책’

빌 게이츠
조지프 스타글리츠
추천도서

상생. 참으로 좋은 말이다. 상생은 역사를 지나며 다양한 형태의 논리로 우리와 함께해왔다. 고대 시민 사회에서는 노예들을 먹여 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며 계몽시켜 주는 대신 노예들은 그들의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며 자신을 착취당해야 했으며, 중세시대에는 영주와 기사와 농노의 기독교 윤리를 기반으로 한 서로간의 ‘봉사’와 ‘헌신’이 쌍무적 계약관계 등의 형태로 존재했다. 근대 산업 혁명 이후에 상생은 기독교 윤리와 가부장 이데올로기, 즉 자신들이 파괴한 중세 봉건제의 윤리를 다시 가져다가 사용했다. 그들은 19세기의 자본가들이 자애로운 엘리트 집단처럼 보였으며, 그 본질은 간과 한 상태에서, 트러스트나 독점기업, 카르텔과 같이 시장에서 독점 상태가 이루어지면 경쟁이 최소화되고 독점 기업들은 그 의무를 다하여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와 막대한 낭비를 방

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물론, 어느 때와 같이 그런 취지에 따른 법이 만들어졌지만, 당연하게도 처절하게 실패했다. 아니면, 그들은 공리주의의 논리를 앞장 세워 자본가들의 착취구조와 노동계급의 비인간적 대우 및 생활을 합리화 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며 또 다시, 새로운 형태의 상생의 논리가 등장하고 있다. 바로 시장과 수익추구를 통한 사회변화의 유도이다.

이 책-엘리트 독식 사회는 인도계 미국인인 아난드 기리다라다스가 쓴 책이다. 그는 현재 타임지 논설주간이고, 뉴욕타임즈 기자임과 동시에 여러 저널리즘 관련 단체에서 일 해왔고, 하고 있다. 유일하게 좌익과 관련되어 보이는 실적이라고는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인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LA의 전 교육부 장관 명칭을 따온듯한 뉴욕 공립 도서관의 헬렌 베른슈타인(실제로는 번스타인) 어워드 뿐으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작가는 좌익 사상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이고 조금 더 좌익으로 경도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영 탐탁잖아 보이겠지만, 어찌되었건, 우리는 그의 목소리에 상당히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정말로 우리가 학문적으로 우월하기 위해서라면, 특히 사회과학은 다각도의 시선에서 보고, 종합적으로 모은 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함이 아니겠는가? 비판할 것은 비판하며, 수용 할 것은 수용해야 한다. 아니면 조선과 동아에서 추천하기도 한 책이긴 해도 한겨레와 경향에서도 추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아 줄 수 없겠는가?

어쨌건, 책은 졸업을 앞둔 힐러리 코헨이라는 조지타운대의 4학년생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그녀는 휴스턴의 부유한 동네에서 자라며 고소득자인 부모님을 두어 유년기부터 매우 좋은 사립학교를 다니며 좋은 대학교에 입학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읽으며 바뀐다. 그녀의 목표는 이제 영광, 돈, 명예, 명성 그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행복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최상위 엘리트 그 자체였다. 빈부격차가 심화되며, 대침체의 영향으로 사회 갈등이 커져가는 가운데, 그녀는 비영리 재단에서 일할 것인지, 아니면 대기업에서 일할 것인지 선택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녀는 대기업을 선택했다. 그렇다고 그녀가 그녀 스스로의 대의를 저버렸다는 것은 아니다. 골드만삭스와 같은 기업들은 대학교의 젊은이들을 상대로 인문학이 제공한다고 주장 하는 것과 우월한 비전을 제공한다고 자신들 스스로 주장했으며, 세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돈을 다루는 기술이 필요 하다고 꼬드겼다. 예를 들어, 앞서 말한 골드만에서는 ‘1만 명의 여성’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여성 기업가에게 투자하고 조연도 제공했다. 그 뿐만 아니라 채권-투자의 형태로 공공사업을 벌이며 ‘선행’과 ‘사회에의 기업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다. 물론 자본가의 일 답게, 이 중 상당수는 실패했다. 골드만은 그녀에게 너무 성공 지향적이었다. 그녀는 결국 맥킨지를 선택하고 입사하지만, 역시나 일중독자들의, 혹은 인격이 자본화 된 듯 한 자들의 사내문화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하지만 그녀는 일단 참아나갔다. 맥킨지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나감에 그녀는 ‘마켓월드’에 합류한다. 마켓월드는 신흥 권력 엘리트들의 세계로, 계몽된 자본가와 자선단체, 학계, 언론, 정부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특히나, ‘지적 소매상’이라고 불리며 TED와 같은 대중적인 플랫폼에서 강연하는 사상가들은 그들의 대의를 퍼트리며 영토를 넓혀나갔다. 그들은 시스템에는 관심이 없다. 자유시장과 자발적 행동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이러한 무대에서 사회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 웃기게도, 맥킨지와 같은 경영 컨설턴트 기업들은 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최적화 하라고 말한다. 그 결과, 손익계산서는 좋아지지만 공급사슬은 악화되어 잉여이익을 위해 가장 희생시키기 쉬운, 노동자의 생활수준과 권리는 악화일로로 걷는다. 그리고 나서, 애초에 문제를 안 만들면 될 것이, 그들은 우리가 문제를 만들었지만 우리가 다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며 자위한다. 결국 그녀는 실망했다. 그녀가 컨설팅 기업의 돈을 받는 상황 하에서는, 그녀와 그녀의 동료들은 자신들과 같은 ‘자본주의의 승리자들’에게 도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맥킨지를 나온다.

이 책에서 자본주의의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나는 그들 중 몇 명의 이야기나 아니면 사례를 조금만 더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우버와 에어비엔비는 소위 기업계의 반란군들이다. 그들은 작은 자본과 혁신적인 생각, 그리고 공유 경제라는 생각에서 창발하여 시작한 벤처기업으로, 실제로도 상당한 실적을 거두었다. 우버는 차고에서 자고 있는 차를 꺼내다가 몰기만 하면 돈을 받고, 에어비엔비는 남는 방만 사용한다던 되니, 이 얼마나 자율적이고 대중친화적인 방법인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쿼르티나 크리텐튼이라는 아프리카계 여성은 에어비엔비에서 숙박 예약을 하려 할 때, 인종이 조건에 있는 것을 보고 불만을 표시하고, 흑인이 아니라 백인으로 위장하자 거부되었던 숙소들이 즉각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알려지며, 이 논란은 들불처럼 퍼져나간다. 에어비엔비가 무엇을 했을 것 같나? 책임? 처벌? 사과와 약속, 그리고 개선?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은 책임을 회피했다. 플랫폼만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법적인 책임을 빠져나가려 시도했다. 동시간대에 우버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우버의 노동자들은 노동법적인 피고용인 대우를 요구하며 우버와 경쟁사인 리프트에 소송을 제기했다. 우버는 노동자들이 계약에 서명했으므로 노동자가 아니라 자신의 자유로운 시간을 활용하는 사업가로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은 사업가가 아니다. 우버는 운전자의 서비를 감독하고 추적하며 통제하고 피드백을 주는 등 기존 기업들과는 다른 형태의 권력으로 그들을 감독했다. 우버의 노동자들은 사소한 위반으로도 해고 될 수 있었고, 결국에는 주법원도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다. 이를 물론 일부 기업들의 일탈로 치부 할 수도 있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러한 형태는 좀 더 만연해졌다.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집중화되며 더욱 더 강력해지는 과두정이 되는 반면에, 노동자의 역할은 축소되고 기술의 역할은 확대된다. 노동자들은 파편화된 계약자로 존재해 결집력이 약해지며, 동시에 협상력도 약해진다. 이게 바로 지금 혁신기업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앞서 말한 지식 소매상들은 언론인들, 혹은 교수들과 같은 공공지식인과 달리 특정 집단에 소속되지 않는다. 그들은 플랫폼과 플랫폼을 옮겨 다니며 연설하고, 교육한다. 어떨 때는 TED와 같은 대중적 매체 일 수도, 아니면 특정 기업에서 진행되는 세미나 일 수도 있다. 그들은 정치적 양극화로 대중이 모든 종류의 정책과 공공 분야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불평등이 심화되어 대중들은 해법을 요구로 했으며, 탈권위화가 이루어지는 사회 기조를 바탕으로 힘을 얻어나갔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후원자가 있었다. 후원자라 하면, 바로 그들을 불러주는 기업들과 자본가들이다. 커디 라는 페미니스트 연설가가 있었다. 그녀는 하버드 경영대의 사회심리학자로, 차별에 관해 연구해왔으며, 드디어, 어느 날 그녀에게 연설을 할 기회가 주어졌다. 주제는 학술지에 실린 그녀의 논문인 ‘간단한 비언어적 표현이 신경내분비 수준과 위험 관용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한, 신체적인 자세를 통한 성차별의 극복이었다. 윈더우먼의 이미지를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열광적인 호응을 얻은 그녀는 이런 주제의 연설을 점차 더 늘려나간다. 그리고 그게 끝이었다. 그녀는 근본적인 젠더 문제를 건드릴 수 없었다. 마켓월드가 원하는 것은 우리는 성차별주의자가 아니다 와 같은 인식 뿐 이고, 사회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나의 상품이 되었다. 그녀가 근본을 건드리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무로 돌아갔으며, 기업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가 다시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줄이자, 마켓월드는 다시 환영했다. 그녀는 유명해짐과 동시에, 모두가 빠져있는 유일무이의 사고방식, 즉 ‘그들의 세계관은 옳다’의 세계

에 뛰어 들었고, 노골적으로 구조적인 성차별을 겪었다. 그녀는 실망했다. 엘리트들은 그녀처럼 반체제적인 인물들은 실질적으로 돈줄을 쥐고 흔들고 동시에, 체제에 친화적인 인물들은 돈으로 매수해버린다. 사이먼 사이넥은 100 달러를 받으며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을 찾아주는 상담을 하는 컨설턴터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기업에서 그러한 내용의 강연을 하게 되었고, 2시간 30분을 강연 한 후 5000달러를 벌어들였다. 그는 말 그대로, 크게 웃으면서 거리를 돌아다녔다. 그는 기존에 이 수준의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일 해야 하는지 생각해봤다. 아무리 단순히 생각해봐도, 이런 거부하기에는 너무나 큰 돈이었다.

엘리트들의 친체제적이며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역설적으로 사회의 변화를 원한다는 표리부동한 행동은 이것들이 끝이 아니다. 책에는 수많은 그들의 위선이 실려 있으며, 그들은 모두 하나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시장은 옳고 그 위에 군림한 자신들 또한 옳다. 그들의 동기는 수단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목적도 정당화하기에 이른다. 엘리트주의. 그들이 지닌 사상의 이름이다.

그렇다면 대중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엘리트와 기술관료들이 득세해나가며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 시키는 과정에서 그들의 통치에 순응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그들은 저항했다. 물론 그 저항이 딱히 바람직하고 볼 수는 없는 것이, 그들은 자신들이 진정으로 대중의 의사를 전달한다고 주장하는 대안우파와 포퓰리스트들에게 표를 던져주었다. 유럽에서는 관료집단 자체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항하기 위해 탈 유럽연합 정당들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에서는 우리 모두가 알 듯이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하지만, 그들 또한 대중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다. 그들은 대중인민을 자신들의 정치권력 획득을 위해 전략적으로 이용했다.

우리는 전 세계가 이러한 반동의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진정으로 대중인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권자 스스로가 자신을 통치하지 못한다면 이는 누구를 위한 통치인가? 모든 권력을 한곳으로 집중시키자는 주장은 대중인민에게 매력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고, 윤리적으로도 옳지 않다. 모든 종류의 엘리트주의는 배격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노동해방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서서히 전진해왔다. 때로는 반동이 일어나고, 때로는 실패에 실패를 이었고, 때로는, 상당히 성공을 거두기도 했으나, 결론적으로 그래프의 전반적인 추세는 우상향 해왔다. 우리는 점점 자본가들을 뒤로 물리나게 하고, 우리의 권리는 점차 전진하게 만들었다. 착취의 구조는 언젠가 끊어질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노예의 죄사슬을 끊는 것은 어떠한 높으신 양반이나 고귀한 이념도, 허공의 매인 십자가도 아니라 강철 같은 우리 손이다.

이상 병신 개소리였습니다